

대전, 디자인으로 스포츠 팬심 잡다... '꿈돌이 굿즈' 출시

2025.07.27 오전 09:57

대전디자인진흥원, 대전하나시티즌 공동 개발
비치타올·키링 등 4종 한정판, 27일 홈경기서 판매 시작



대전디자인진흥원이 대전하나시티즌과 공동으로 개발한 '여름 태닝 에디션' 굿즈. 왼쪽부터 키링, 비치타올, 부채, 헤어핀. (대전디자인진흥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7.27/뉴스1

(대전=뉴스1) 이동원 기자 = 대전디자인진흥원이 대전하나시티즌과 공동 개발한 '여름 태닝 에디션' 굿즈가 27일 홈경기에서 최초 공개 및 판매에 나선다.

이번 굿즈는 대전시청, 대전디자인진흥원, 대전하나시티즌, 대전관광공사 4개 기관의 공동 브랜딩 업무협약의 하나로, 지역 대표 캐릭터 '꿈돌이'를 활용하여 도시 이미지 확산을 목표로 한다.

특히, 대전디자인진흥원의 '세계일류 디자이너 양성사업(KDM+)' 소속 학생들이 이번 굿즈 기획에 참여하여, 교육 성과를 실제 제품으로 구현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여름 태닝 에디션’은 비치타올, 키링, 헤어핀, 부채 등 총 4종의 한정판 굿즈로 구성됐다. 이 제품들은 대전하나시티즌 홈경기장 MD샵에서 공개 및 판매되며, 팬들에게 특별한 소장 가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기 대전디자인진흥원 원장은 “지역 예비 디자이너가 직접 참여하여 제품화까지 연결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인재 성장을 위한 실무형 프로젝트를 지속해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newskija@news1.kr

🔗 <https://www.news1.kr/local/daejeon-chungnam/5859946>